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88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4.16~2026.04.22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1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예비후부(경선), 청년, 도의원, 정수, 마을
경제·관광	수출, 기반, 글로벌, 가격, 서비스
지역·사회	장애인, 기억, 청년, 경기, 학생

※ 분석 기간 : 26.04.16.~26.04.22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예비후부(경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위성곤 의원 선출 - 제주시갑 도의원 경선 현역 의원들의 수성 - 오라동 유령당원 의혹 경선 중단 및 재투표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추경예산안 내 청년 자립 지원 반영 - 개혁신당 이건우 후보 청년도전기금 공약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청년몰 조성 및 창업 지원
	도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 수성과 정치 신인들의 도전 대진표 확정 - 서귀포시 여성 의무 공천 따른 후보자 재공모 - 강성의 후보 공공형 경력인증센터 설립 제안
	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의원 정수 45명 유지 및 비례대표 확대 - 유권자 혼란 방지 위한 지역구 현행 유지 결정 -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후속 조례 개정 추진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햇빛소득마을 추진 - 권역별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통한 마을 발전 - 세대 통합형 삼도동 커뮤니티 복합센터 조성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품목 주도의 3월 제주 수출액 역대급 성장세 기록 - 제주시농협 농산물 수출 1,000톤 달성 및 판로 다변화 -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수출 마케팅 지원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디지털 기반 스마트 씨감자 생산 시스템 구축 및 농정 혁신 - 사회연대경제 모델 발굴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관광기구와의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섬 관광 표준화 협력 - 싱가포르 국제 마이스 박람회 참가를 통한 수요 유치 활동 - 스타트업의 일본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육성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및 물류 가격 급등 피해 - 항공 유류할증료 역대 최고 수준 인상 및 여행객 부담 가중 - 부동산 시장의 고분양가 및 고금리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전면 개편을 통한 정보 서비스 고도화 -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K-패스' 혜택의 한시적 확대 운영 - AI 기술을 접목한 복지 안전망 구축 및 디지털 행정 서비스 혁신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장애인 고용률 저조 및 직무 편중 현상 심각성 - 장애학생의 사회 안착 돕는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가동 - 장애인복지시설 내 중증장애인 낙상 사고 은폐 의혹 수사
	기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참사 12주기 제주 기억관 추모 및 책임 촉구 - 제주 4·3 단체들의 역사 왜곡 집회 관련 법적 강력 대응 - 4·19 혁명 주역 김한주 회장 건국포장 수훈과 역사 정립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물가 시대 제주 청년들의 생활비 절감 '거지맵' 확산 - 서귀포 표선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및 정착 지원 - 제주 출생 청년들의 고향 잔류율 전국 광역지자체 중 2위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SK FC 대전 원정 경기서 상위권 반등 위한 승점 조준 - 포지션 변신 장민규와 '스피드 스타' 신상은의 공수 활약 - 장애학생들의 정보화 역량 겨루는 제주특수교육정보화대회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 성과 및 학교폭력 중증 사고 감소 - 초등 돌봄교실 어린이 대상 제철 과일 간식 지원 본격 추진 - 신성여고 학생들의 자발적 나눔 바자회 및 학습 교재 기부

정치·행정	<p>예비후부 (경선)</p>	<p>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갑 도의원 경선 현역 의원들의 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갑 지역구 3곳에서 실시된 민주당 경선 결과, 현역인 정민구, 송창권, 강봉직 의원이 탄탄한 지역 기반과 의정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도전자들을 물리치고 본선 진출권을 확보하며 현역 의원들의 강세 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를 도출함. · 최대 격전지인 연동갑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현직 양영식 의원과 강권종 예비후보 간의 2차 결선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경선 결과가 향후 본선 현장의 표심 향배와 정당 지지율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됨. - 오라동 유령당원 의혹 경선 중단 및 재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유령당원이 조직적으로 가입되었다는 의혹이 공식 제기되면서 오라동 선거구의 민주당 경선 절차가 전면 중단되었으며, 당 선관위는 기존 투표를 무효 처리하고 당원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일반 유권자 투표 비중을 90%까지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을 논의함. · 당내 공정성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며, 이러한 유령당원 사태가 자칫 선거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재투표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엄정한 후속 조치가 진행 중임.
	<p>청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추경예산안 내 청년 자립 지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를 돕는 지원 사업과 사회연대경제 분야 청년 일경험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되었으며, 이는 청년 세대의 고용 불안정과 심리적 위기 상황을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임. ·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총 7개의 주요 일자리 관련 사업에 약 8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단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제주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강화함. - 개혁신당 이건우 후보 청년도전기금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형동을 선거구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건우 후보는 청년들이 창업과 새로운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청년도전기금' 조성을 약속했으며, 이는 기존의 단발성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혁신적인 실험을 장려하는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함. · 도 예산과 우량 기업의 사회공헌 자금을 결합한 매칭 펀드 형태로 기금을 운용하고 도심 내 유휴 공간을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제공하는 구상을 발표하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함.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청년몰 조성 및 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창권 예비후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내에 청년들이 입점하여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몰'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

정치·행정	청년	<p>고, 입점 청년들을 위해 임대료 감면 및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 초기 창업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체계적인 정책을 제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신한 감각을 가진 청년 창업가들을 대거 유입시켜 고령화된 전통시장에 젊은 활기를 불어넣고 기존 상인들과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창업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
	도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 수성과 정치 신인들의 도전 대진표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당 도의원 경선 결과 대다수의 현역 의원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며 득권을 수성하는 데 성공했으나, 곳곳에서 참신한 비전과 정책을 무기로 도전장을 내민 정치 신인들이 가세하면서 지역구별로 치열한 본선 경쟁 체제가 구축되고 도민들의 선택 폭이 한층 넓어지는 양상임. · 구좌·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들이 재선 또는 3선 고지를 향한 행보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각 정당의 후보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역 발전 공약과 의정 혁신을 둘러싼 후보자 간의 열띤 토론과 유세 활동이 도 전역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음. - 서귀포시 여성 의무 공천 따른 후보자 재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여성 후보자가 전원 탈락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 1명 이상 추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재공모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는 지방선거의 양성평등 실현과 정치권 내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필수 절차임. · 여성 의무 공천 지역으로 전략 지정된 정방·중앙·천치·서홍동 선거구의 경우 출마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여 후보를 다시 선발 중이며, 당내 공천 규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여성 인재를 발굴하여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함. - 강성의 후보 공공형 경력인증센터 설립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북동 선거구의 강성의 후보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이직이 잦아진 노동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여, 개인이 쌓아온 다양한 노동 기록과 생애 경력을 공공기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증해 주는 '공공형 경력인증센터' 설립을 핵심적인 지역 정책 공약으로 전면내세움. · 폐업한 사업장의 근무 이력 증명이나 프리랜서의 활동 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공이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자신의 숙련도를 정당하게 평가받아 더 나은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지향적인 노동 복지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임.
	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의원 정수 45명 유지 및 비례대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에 적용할 도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 45명으로 최종 확정하되,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라 남게 되는 5석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총 13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확정안을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공식 제출함. · 이는 지역구 의원의 비중은 유지하면서도 비례대표 비중을 높여 정당의 득표

정치·행정	정수	<p>울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며,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와 전문가 집단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힘으로써 제주도의회의 전문성과 민주적 대표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제도적 변화임.</p> <p>- 유권자 혼란 방지 위한 지역구 현행 유지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정위원회는 이미 많은 예비후보가 등록하여 선거 운동을 활발히 진행 중인 현실적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급격한 선거구 조정이나 분구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2개 지역구 체제를 가급적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안정적인 획정 원칙을 선택함. ·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최신 인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엄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정서적 일체감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구를 확정함으로써 선거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원활한 선거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함. <p>-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후속 조례 개정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는 확정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지방선거 시행을 위한 법적·행정적 기틀을 완벽히 갖추 예정임. · 비례대표 비중을 전체 의석의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고 후보자 추천 및 선거인단 구성 등 후속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며, 이달 말까지 모든 획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마을	<p>-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햇빛소득마을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공동체가 직접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하거나 지역 복지 사업에 사용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제주 전역에서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자립과 마을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인 주민 주도형 모델임. · 행정리 단위로 주민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수익 배분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제주도는 전력 계통 수용 능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컨설팅 전담 지원단을 운영하여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기술적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마을 단위의 탄소중립 실천과 기본소득 창출을 적극 지원함. <p>- 권역별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통한 마을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익 후보는 기존 마을활동가 지원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을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권역별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를 제안했으며, 이는 전문가가 현장에 상주하며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정부 공모 사업 기획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마을 변화를 이끄는 구조임. · 유사한 환경을 가진 4~5개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코디네이터가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행정과 마을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고령화된 마을 공동체가 스스로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춤. <p>- 세대 통합형 삼도동 커뮤니티 복합센터 조성</p>

정치·행정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민구 예비후보는 원도심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한 공간에서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삼도동 커뮤니티 복합센터' 건립을 약속했으며, 이는 단순한 주민 편의 시설을 넘어 마을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단절된 이웃 간의 관계망을 복원하는 거점 공간임. · 센터 내에 마을 도서관, 돌봄 공간, 평생학습장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SOC를 배치하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설계하여,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민주적 자치 공간으로 발전시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임.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수출, 기반, 글로벌, 가격, 서비스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품목 주도의 3월 제주 수출액 역대급 성장세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3월 제주 지역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07.9% 급증한 6,359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인 49.2%를 크게 상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 · 주력 품목인 집적회로 반도체가 251.4% 폭증한 4,658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의 73.3%를 견인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냈으나 이를 제외한 수출은 1.9% 감소한 1,700만 달러에 그쳐 특정 품목 쏠림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대
-------	----	--

	수출	<p>응 및 품목 다변화가 과제로 남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농협 농산물 수출 1,000톤 달성 및 판로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농협이 2025년산 농산물 수출량 1,009톤을 기록하며 2018년 51톤 대비 7년 만에 20배 가까운 성장을 이뤄내고 동남아시아와 몽골 및 북미 지역 등 전 세계 15개국으로 수출 영토를 확장하며 제주 농산물의 글로벌 위상을 입증함. · 통합 브랜드 '제즈머라이즈'를 통해 감귤과 키위 및 월동채소 등 주요 품목을 하나로 묶어 마케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향후 500만 불 수출 달성을 목표로 신선 농산물 확대 및 글로벌 소비자 맞춤형 가공상품 개발과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함. -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수출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와 무역협회가 '도쿄 K-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참가하여 한라산 소주와 유기농 착즙 주스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의 일본 시장 안착을 도모하고 현지 바이어와의 일대일 매칭을 통해 도내 기업의 글로벌 자생력 확보를 적극 지원함. · 중국 '도우인'과 '허마센싱' 등 현지 유력 유통 채널 입점을 지원하고 수출 실적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해관 등록 대행과 홍보 영상 제작 및 중문 번역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 판로 개척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함.
경제·관광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가 구멍갈파래 유래 물질 개발 및 AI 음성 가이드 서비스 등 제주의 특화 자원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4개 신규 과제를 최종 선정하여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비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함. · 2020년부터 추진된 본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지원된 18건의 과제를 바탕으로 총 29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신규 사업 11건을 추가로 유치하는 등 지자체의 선제적인 투자가 지역 기업의 역량을 키우고 대규모 국비 확보를 이끄는 핵심적인 마중물 역할을 수행함. - 디지털 기반 스마트 씨감자 생산 시스템 구축 및 농정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수경재배 씨감자 생산을 자동제어 기반 스마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생육 관리 모델 개발에 착수하여 양액 공급 및 환경 변화에 정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의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기온 및 일사량 등 환경 데이터와 씨감자 생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축적하고 분석하여 표준화된 디지털 제어 기술을 정립함으로써 기존의 경험 중심 농업에서 탈피해 안정적인 고품질 종자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제주형 디지털 농정로의 전환을 가속화함. - 사회연대경제 모델 발굴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공모에 미식 관광 혁신 및 성산 지역 유산 활용 굿즈 개발 등 2개 혁신 모델이 선정되어 3년간 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과 소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자생적 지역 경제

경제·관광	기반	<p>선순환 생태계의 기틀을 마련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DC와 제주에너지공사가 RE100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지분 투자 및 국책 과제 공동 발굴 등 실질적인 이행 수단을 추진함으로써 제주의 탄소 중립 정책 실행 기반을 공고히 함.
	글로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관광기구와의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섬 관광 표준화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스페인 소재 UN 관광기구 본부를 방문하여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섬 관광의 표준 운영 매뉴얼 개발과 ITOP 포럼 기반의 네트워크 확장 및 관광 데이터 수집 공유를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 실무 협의를 진행하여 국제 무대에서의 정책적 영향력을 강화함. · 샤이카 알 노와이스 사무총장이 제주 방문단을 직접 환영하며 세화리 및 신흥 2리 등 최우수관광마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글로벌 관광 교육 워크숍과 훈련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제주를 지속 가능 관광의 글로벌 모델이자 거점으로 육성함. - 싱가포르 국제 마이스 박람회 참가를 통한 수요 유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더 미팅쇼 아시아 태평양 2026'에 민관 합동 추진단이 참가하여 258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으며 제주의 '2035 탄소 없는 섬' 정책과 지속 가능한 그린 마이스 지원 제도를 집중 홍보하여 글로벌 바이어들로부터 아시아 대표 목적지로 선정됨. · '해녀의 부엌'과 협업하여 해녀 문화와 향토 음식을 결합한 스토리텔링 시식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제주만의 독특한 로컬 콘텐츠와 마이스 목적지로서의 경쟁력을 각인시켰으며 싱가포르 교육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래 세대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함. - 스타트업의 일본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리즈 J'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1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 투자 심사 자격 부여 및 현지 전문가 코칭과 멘토링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초기 단계 기업의 일본 현지 안착과 글로벌 사업 모델 확장을 적극 지원함. · JDC가 일본 키라보시 및 국내 BNK 금융그룹과 협력하여 입주 기업에 해외 시장 정보와 법인 설립 컨설팅 및 현지 인프라를 지원하며 특히 스마트 수산 기술 보유 기업의 베트남 투자 연계 등 실질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과 투자 유치 성과를 구체화함.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및 물류 가격 급등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인해 제주 수출 기업의 84.1%가 경영상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급증 및 환율 변동성 확대가 주요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고정비 부담이 가중되고 수출 제품의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 · 유가 상승에 따른 나프타 가격 급등으로 포장재 가격이 최대 50% 인상되고 감귤 생산에 필수적인 타이백 등 농자재 가격도 30% 이상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농가 경영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는 고품질 재배 포기로 이어져 제주 감귤 산업 전체의 타격이 우려됨.

	<p>가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유류할증료 역대 최고 수준 인상 및 여행객 부담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발권 기준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전월 대비 4.4배 폭등한 34,100원으로 책정되어 2016년 현행 체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액을 기록함에 따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이동이 잦은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정의 달 성수기를 앞두고 급격히 상승함. · 국제선 유류할증료 또한 최고 단계인 33단계로 상향되어 뉴욕행 왕복 시 할증료만 112만 원을 상회함에 따라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지를 선택하는 반사이익이 기대되나 제주 노선의 공급석 감소와 정상 운임 상승이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부동산 시장의 고분양가 및 고금리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전국 평균 대비 최대 50% 비싸게 형성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한계에 달했고 주택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높은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해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4년 넘게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주택과 토지 전 분야에서 하락하며 전국 최저 수준인 87.6을 기록했고 매도 희망자는 넘치는 반면 매수자는 사라진 관망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장기간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며 시장 냉각기가 장기화되는 양상임.
<p>경제·관광</p>	<p>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전면 개편을 통한 정보 서비스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유동 인구와 차량 분포 및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를 지도 기반으로 통합한 '데이터맵 제주'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여 관광 현장에서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상권 변화를 파악하고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고수준의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함. · 5분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유동 인구 혼잡도 정보와 카드뉴스 형식의 트렌드리포트를 제공하여 데이터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으며 총 35개 콘텐츠의 검색 및 다운로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까지 아우르는 정밀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구축함. -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K-패스' 혜택의 한시적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특정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시 기본 환급률에 30%를 추가로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83.3%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경제적 실익을 증진함. ·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정액제 기준 금액을 50% 하향 조정하여 도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1만 원의 추가 환급 효과가 예상되며 시행 이후 가입자가 331% 급증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대민 서비스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둠. - AI 기술을 접목한 복지 안전망 구축 및 디지털 행정 서비스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움직임 감지와 AI 안부 메시지를 연계한 5단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실시간 현장 출동을 지원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촘촘한 돌봄 서비스로 지역 사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함.

경제·관광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농업 정책수당 비대면 신청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농번기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농업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이용자 만족도 4.76점을 기록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모델의 가능성을 입증함.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장애인, 기억, 청년, 경기, 학생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장애인 고용률 저조 및 직무 편중 현상 심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 장애인 고용률이 42.0%로 전체 평균(69.8%) 대비 현저히 낮으며, 취업한 노동자의 66.4%가 비정규직인 열악한 고용 구조 속에 제조·세탁 등 단순 반복 업무에만 극도로 편향되어 있어 장애 특성에 부합하는 직무 다양성 확보 및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 전문가들은 노동을 경제적 효율이 아닌 보편적 권리로 접근하여 경기도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하며, 장애인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및 인식 개선 캠페인 등 공공영역에서 사람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직무를 발굴하고 민간 기업의 고용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정책적 지원 체계 확립을 촉구함.
-------	-----	---

지역·사회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의 사회 안착 돕는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교육청이 범부처 서비스를 통합·연계한 ‘2026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여,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 평가부터 맞춤형 교육, 고용 지원, 사후 관리까지 단절 없는 체계적인 진로·직업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지역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의 견고한 협업을 통해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의 직무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진로직업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우수한 취업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장으로 장애인 채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학생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내실화함. - 장애인복지시설 내 중증장애인 낙상 사고 은폐 의혹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이 침대 낙상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측이 사고 발생 사실을 8일이나 지연 통보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 없이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보호자가 유기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시설 내 안전 관리 부실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름. · 시설 측은 입소자가 스스로 안전바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호자와 전문가는 중증 상태의 환자가 직접 장치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 당시 침실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객관적 정황 파악에 난항을 겪는 상황 속에 이번 사안을 노인 및 장애인 학대 방임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기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참사 12주기 제주 기억관 추모 및 책임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제주시 봉개동 세월호 제주 기억관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으며, 유가족과 시민들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수준을 넘어 참사의 명확한 진실 규명과 정부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력히 호소하며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성숙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공동의 연대 의식을 확산시킴. ·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과 생존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미술·사진 기획 전시회 등을 통해 참사의 아픔을 사회적 치유로 확장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제주 정치권에서도 재난 예방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약속하며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안전 1등 제주’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공동체 차원의 지속적인 기억 활동을 다짐함. - 제주 4·3 단체들의 역사 왜곡 집회 관련 법적 강력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이 지난 추념식 당일 평화공원 인근에서 ‘4·3은 공산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보수 단체 관계자들을 집시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정식 고소하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처벌과 수사를 강력히 촉구함. · 유족회는 이번 사태를 국가 기관의 진상 조사를 통해 규명된 역사를 왜곡한

	<p>지역·사회</p>	<p>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4·3 왜곡 처벌 규정을 명시한 4·3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함과 동시에 송고한 역사가 후대에게 올바르게 전수될 수 있도록 도민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함.</p> <p>- 4·19 혁명 주역 김한주 회장 건국포장 수훈과 역사 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제주4·19기념회 김한주 회장이 1960년 서울대 약대 재학 당시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학생 시위를 주도하고 대열의 선봉에서 지휘하다 경찰의 발포와 혼란 속에 큰 부상을 입었던 공로를 인정받아, 제66주년 기념식을 통해 국가보훈부로부터 건국포장을 수여받으며 수십 년 만에 혁명의 주체로서 역사적 공적을 공식적으로 예우받음. · 김 회장은 과거 언론 보도에서 약대생 시위 사진이 의대생 시위로 잘못 기록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5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마침내 정정보도를 이끌어내며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웠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를 실천했던 청년 정신이 단순한 기록에 머물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살아있는 교훈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는 소회를 밝힘.
<p>지역·사회</p>	<p>청년</p>	<p>- 고물가 시대 제주 청년들의 생활비 절감 '거지맵'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제주 지역 2030 청년들 사이에서 8,000원 이하 가성비 식당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맵'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대학 내 식당이나 기사식당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을 찾아 끼니를 해결하거나 편의점 간편식으로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고단한 현실을 견뎌내는 청년층의 애환이 고스란히 반영된 유행으로 평가됨. · 전국 최고 수준의 외식 물가로 인해 일반 식당의 칼국수 한 그릇마저 1만 원을 넘어서는 상황 속에 청년들은 지출 방안을 공유하는 '거지방' 활동 등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식자재비 급등으로 인해 '거지맵'에 등재된 저가 식당들조차 가격 유지가 힘들어 인상을 고민하는 실정이라 청년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p>- 서귀포 표선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및 정착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주관 '2026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에서 서귀포시 표선면의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되어 3년간 총 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의 자원과 공간을 활용해 로컬 프로젝트를 실험하고 주민들과 긴밀하게 교류하며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창의적인 지역 정착 모델 구축의 발판이 마련됨. · 이번 사업은 제주의 고유한 지역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유입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도정은 청년들이 제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고 타 지역 청년들도 정착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너지를 높일 계획임. <p>- 제주 출생 청년들의 고향 잔류율 전국 광역지자체 중 2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대 유삼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제주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만 35세까지 고향에 머무르는 비율이 65.4%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

	<p>청년</p>	<p>타났으며, 이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강한 지역적 정체성, 그리고 생활권 이동의 상대적 제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역 인구 구조의 유지 역량이 다른 비수도권 지역보다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여성의 잔류율이 69.2%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지표는 지역사회의 인구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인 만큼 제주 도정은 잔류하는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교육 인프라 개선, 주거 지원 정책 등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여 청년 인구 유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야 함.
<p>지역·사회</p>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SK FC 대전 원정 경기서 상위권 반등 위한 승점 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4경기 연속 무패(2승 2무)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탄 제주SK FC가 대전하나시티즌과의 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맞대결을 펼치며, 승점과 골득실까지 동일한 공동 7위 간의 접전 속에 고강도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한 전술적 우위를 점하여 상위권 도약의 결정적인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됨. ·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은 주중-주말로 이어지는 타이트한 연전 일정 속에서 선수들의 체력 및 멘탈 관리가 승부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조직적인 압박으로 상대의 패스 경로를 차단하는 트랜지션 싸움에서의 승리와 세트피스 득점 등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하여 순간의 차이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승점을 확보하겠다는 단단한 출사표를 던짐. - 포지션 변신 장민규와 '스피드 스타' 신상은의 공수 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SK의 장민규 선수가 수비수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완벽하게 포지션을 변경하여 높은 위치에서부터 과감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 포항전에서의 선제 결승골 득점 등 탁월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팀의 안정감 향상과 연승 행진에 중추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 공격에서는 팀 내 최고 스피드를 자랑하는 신상은 선수가 폭발적인 가속력과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파고들며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어, 골키퍼 부문 지표 상위권인 김동준의 무실점 방어와 함께 완벽한 공수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다가오는 경기들에서 세르지우 감독의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카드로 부상함. - 장애학생들의 정보화 역량 겨루는 제주특수교육정보화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교육청 주관으로 오는 6월 개최되는 '제21회 제주특수교육정보화대회'를 위해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별 예선 경기에 돌입하였으며, 아래한글·로봇코딩 등 18개 정보경진 종목과 닌텐도 스위치·FC온라인 등 11개 이스포츠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디지털 역량과 활기 넘치는 경기 감각을 뽐낼 예정임. · 이번 대회는 장애 학생들의 정보화 능력 신장과 함께 건전한 여가 활동 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디지털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선발된 대표 학생들은 '전국 장애학생 이(e)페스티벌'에 출전하여 제주 대표로서 우수한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짐.

지역·사회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 성과 및 학교폭력 중증 사고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상주형 학교안전경찰관제(SPO)’ 운영 결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되며 주요 폭력 사고가 전년 대비 약 27.7% 감소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찰관의 상주 배치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과 사전 개입이 가능해져 학교 안전망이 한층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나옴. · 교통 관리 및 예방 교육, 학생 상담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8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제주연구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예방 중심의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함. - 초등 돌봄교실 어린이 대상 제철 과일 간식 지원 본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가 성장기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지역 농가 판로 확보를 위해 관내 69개교 돌봄교실 학생 5,610명을 대상으로 국산 제철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어 연간 공급 횟수를 30회로 확대하고 품목도 감귤 외에 샤인머스켓·딸기 등 6종으로 다양화하여 급식 서비스의 질을 높임. · 매주 목요일마다 HACCP 인증 업체가 제조한 신선한 컵과일 형태로 공급하여 위생과 영양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복지를 실현함과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성장기 어린이들이 비만 예방 등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중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갈 방침임. - 신성여고 학생들의 자발적 나눔 바자회 및 학습 교재 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여자고등학교 복지부 학생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나눔 바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얻은 수익금 53만 원과 미사용 문제집 및 교사용 교재 400권을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에 기부하며, 자원 재활용의 의미를 실천하고 소외계층 아동들의 학습권 보장을 돕는 따뜻한 나눔 문화를 지역사회에 전파함. · 이번 기부 활동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으며, 김소은 학생회장은 자신들에게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물건이 가치 있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소감을 밝히는 등 학교의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아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실천적 인성 교육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음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